

노는 男, 일하는 女

■ 2000~2011년 호남 고용동향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男 17%로 女 두배

50~60대 고령 취업자 19만명...평균 75% ↑

지난 11년 동안 '노는 남자'와 '일하는 여자'가 늘었다. 또 일하는 노인도 증가했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2011년 호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11년 동안 남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자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수가 많이 늘었고 취업자의 주된 연령층도 11년 사이 30대에서 40대로 높아졌다. 지난 2011년 광주지역에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4만 4000명에서 49만 2000명으로 10.8%가 증가했다. 11년 동안 남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3000명에서 17만 9000명으로 17.2%나 늘었지만, 여자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 2000명에서 31만 3000명으로 7.1% 증가한데 그쳤다. 2000년에는 통학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안하는 인구가 많았지만 2011년에 가사가 많았다. 2011년 가사때문에 경제활동을 단념한 사람은 16만 4000명으로 11년 전(13만 7000명)보다 19.8%나 늘었다. 반면 육아(4만 9000명→4만 1000명)와 통학(16만 1000명→15만명)은 각각 16.5%, 7.1% 줄었다. 경제활동 인구는 69만 2000명으로 11년 전(59만 2000명)보다 16.8% 증가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 여자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 중 여자는 24만 7000명이었지만 2011년 29만 9000명으로 20.9%나 증가했다. 그 사이 남자는 34만 5000명에서 39만 3000명으로 13.9% 늘었다. 광주의 2011년 취업자수는 67만 명으로 2000년보다 21.2%(11만 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56.6%

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0~59세 취업자는 12만 9000명으로 2000년(7만 2000명)보다 78.9%가, 60세 이상 취업자는 3만 6000명에서 6만 2000명으로 71.7%나 급증했다. 하지만 2000년에는 14만 2000명이었던 15~29세 취업자수는 11년 만에 11만 6000명으로 18.9%(25만 7000명)나 줄었다. 구직활동을 했던 실업자수는 2만 1000명으로 11년 전보다 45.9%(1만 7900명) 감소했고 실업률도 3.5%포인트 하락한 3.1%로 조사됐다. 전남은 11년 사이 15세 이상 인구(158만 3000명→142만 7000명), 경제활동인구(101만 4000명→90만 4000명)가 9.8%, 10.9%씩 줄었다. 취업자수도 98만 1000명에서 88만 6000명으로 9.7%가 감소했고 고용률은 62.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실업자는 1만 8000명으로 2000년보다 46.4%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뽀히면 영화 예매권 준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위스트리 벽면에 부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11월13일)을 통해 CGV 영화 예매권, 스타벅스 음료교환권, 스타벅스 머그컵 등을 증정한다. <주광주시세계 제공>

“낙농업 살리자”

광주시-매일유업 관촉활동

광주시와 매일유업(주)은 30일 광주 시청 1층에서 '지역 낙농업 살리기'를 주제로 유제품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펼쳤다. 매일유업은 이날 광주시청을 찾은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유와 요구르트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홍보 및 관촉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9월 광주시 관공구 소재 매일유업 공장에서 열린 현장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낙농업을 살리고 유제품 소비를 촉진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1973년 우유공장 설립 이후 40여년 동안 지역 낙농업을 지켜온 매일유업은 하루 180t의 집유를 통해 19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일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설비 시설을 기반으로 저지방 우유 등 100여종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hucky@kwangju.co.kr

올 김장 걱정되네

가을배추 재배면적 19%·무 25% 줄어

가을배추와 가을무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다. 특히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배추농가가 대폭 줄어든데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파종시기를 놓친 탓이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2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남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937ha로 18.5%(668ha)가 줄었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95ha에서 올해 71ha로 25.3%가, 전북은 1805ha에서 1265ha로 29.9%(540ha)가 각각 줄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급감한 것은 지난 2010년 '금(金)배추' 파동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배추가 포기당 1만 5000원을 웃돌자 지난해 재배면적이 늘면서 생산량도 크게 늘었고 배추 가격이 다시 하락해 농가에서 재배를 꺼리는데다 8월 말 이후 태풍과 집중호

우로 배추 정식(아주심기) 시기를 놓쳐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을무는 가을배추보다 재배면적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 호남지역의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2915ha로 지난해보다 24.5%(947ha) 감소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154ha에서 98ha로 36.4%,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1882ha에서 올해 1196ha로 35.5% 각각 감소했다. 기상 악화로 가을무를 제 때 파종하지 못하는데다 이미 파종했던 면적도 침수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영화제 내일 개막

내달 6일까지 55편 상영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최하는 '제10회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AISFF)'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열린다. 10주년 기념 개막작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인 김동호 위원장이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 '주리(JURY)'가 선정됐다. 이번 영화제에는 90개국 2152개 작품(국내 559편, 해외 1593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30개국 55편이 경쟁부문, 1편은 진출작으로 선정돼 상영된다. 출품작 상영 외에도 마스터클래스, 시네마토크, 영화인 소장품 경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이 영화제는 상영된 전 박람회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단편영화 제작 지망생들로부터 영화 상영 기회가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항공기 기내에서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을 계기로 매년 열리게 됐다. 기내영화제로 시작된 AISFF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 단편영화제로 성장해 그동안 약 90개국에서 1만5764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지금까지 아시아항공 기내에서 이 영화제를 거친 단편영화가 6만회 이상 상영됐고, 200만 명의 승객들이 관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기업 자금사정 나아지려나

10월 BSI 3포인트 상승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이 11월에는 자금사정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법인기업체 535

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10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자금사정 조사' 결과 10월 기업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4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85, 비제조업은 82로 전월보다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10월 자금수요 BSI는 106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자금조달 BSI는 95로 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1월 기업자금사정 전망 BSI는 8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94로 6포인트, 비제조업은 82로 2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험사 주택대출 연체 9개월 연속 상승

경기 둔화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9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8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0.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은 지난해 12월(0.45%) 이후 9달째 오름세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51%로 7월과 같았다.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73조 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4%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은 45조

2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은 22조 2000억원이다.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0.04% 줄어든 34조 6000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중소기업대출이 22조 8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항만 물동량 증가폭 '주춤'

3분기 총 9억9669만t...전년보다 2.9% 늘어

전세계 경기 부진 여파로 국내 주요 항만에서 처리하는 물동량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9억9669만t으로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월별 항만 물동량은 8월 감소세로 9월에는 1억 1304만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9% 늘어나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분기까지 누적 물동량을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광양

항, 평택당진항이 각각 6.7%, 6.3%, 7.1% 증가했다. 기계류와 유연탄, 무연탄 등의 수출입물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모래와 유연탄 수출입물량 감소 여파로 인천항과 포항항의 처리 물동량은 각각 2.8%, 5.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16.9%)와 자동차(8.4%), 화공물(5.3%)은 늘었지만 유연탄은 6.3% 줄어 들었다. 전체 항만 물동량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은 1679만TEU(TEU: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 11.3% 증가에서 올해

3분기에는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화물별로는 수출입화물(1019만TEU)과 환적화물(631만TEU)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1%, 11% 증가했다. 항만 중에선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올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1276만TEU로 작년 동기보다 6.3% 늘어났다. 부산항은 올해 3분기까지 월평균 142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 전국 항만의 물동량 증가세를 주도했다. 광양항은 160만TEU로 2.2% 증가했으나 인천항은 144만TEU로 대(對)중국 교역량 축소로 1.8% 감소했다. /연합뉴스

SCREEN GOLF

두암골프존

두암골프존 파격할인

REAL 18홀 14,000원(연중동일)
오전(평일) 12,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골프존 기본형 18홀 12,000원(연중동일요금)
오전(평일) 10,000원(12시 티업까지)

-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동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원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홀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 일제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옛날 5층]

예약 ☎ 234-9999

전북이라 가능합니다

2000만원 소액 투자로 월 80만원의 수익

전북양식업의 전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전복산업의 시장은 약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사업으로 매년 성장하는 거대 산업이며 주요 수산물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세계2위의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원도 전북
2011년 기준 약3700여명의 어민이 연간 7,400톤을 생산 3,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원도군은 전북 일류화 상품개발을 위해 생산관리 유통 판매, 수출, 홍보지원, 관리 지원 등 총 14종 29개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전복 치매 축양산업 이란?
세계 전복을 부화시켜 일정기간 키운 후 양식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북양식업의 기반 산업.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원도군 원도를 농공단지에서 위치 약 33,000㎡(약 만여평) 1200개의 수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국내 최대 전복치매 축양사업을 하고있다.

투자방법

- 2000만원 소액투자(1수조) 후 월 80만원의 배당 발생.
- 계약기간: 6개월 단기계약 (단, 계약 종료 후 원금은 100%환급하며 계약연장은 별도 협의.)
- 선착순 100수조에 한 하며 개인당 5수조에 한 함.
- 주1회 생산현장 방문 (회원자에 한함)

투자조건표

구분	1개월분	6개월분
2,000만원	월 80만원	총 480만원
4,000만원	월 160만원	총 960만원
6,000만원	월 240만원	총 1,440만원

신청계좌

- 신청금: 100만원
-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9-716801
- 예금주: (주)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
- ※ 미계좌식 신청금은 반환됩니다.
- ※미인수산업어조합의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한 제도적기반으로 수산업에 대해 특혜받습니다.

문의 전화 062-368-8100

미인수산업어조합법인